日本古代服飾에 관한 硏究

——韓半島의 影響을 中心으로——

A Study on Ancient Japanese Costume

국립안동대학 가정학과

專任講師 : **李 恩 珠**

Dept. of Home Economics Andong National College

Instructor; **Eun-Joo Lee**

<目 次>

Ⅰ. 序 言
Ⅱ. 先史時代의 服飾
Ⅲ. 古墳時代의 服飾
Ⅳ. 飛鳥·白鳳時代의 服飾
Ⅴ. 結 言
參考文獻

<Abstra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archaeological evidences, it is believed that the Southern Culture centered in KuSu(九州) and the Nothern Culture centered in the centeral Japan, specially at the eastern Japan, existed together with the culture come through the southern regions and northern regions of Japanese Islands in Jomon(繩文) Culture and Yayoi(彌生) Culture period.

As the center of territory moved from KuSu(九州) to GiNae(幾內) in Tumulus(古墳) Culture period, two-pieced style of the northern people who have already there became prevalent. The costume of Tumulus Culture period was developed from the coexistence of southern style and northern style to the merge of the two styles by the nomads come from Korean Peninsula. The riding costume was propagated by Koreans, and the style used in Korean Peninsula was more deeply influenced to the costume of the ruling class.

The costume of Asuka(飛鳥) Culture and MakuHo(白鳳) Culture period succeeds the costume of Tumulus Culture period without wide difference. But the costume of Korean Peninsula lied more deeply as the root of Japanese Costume. While the costume of the ruling class was changed into Tang's style, the costume of the masses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stume of Korean Peninsula. It became the base of current Japanese Folk Costume.

Ⅰ. 序 言

古代東亞細亞文化圈 속에서의 日本은 中國과 韓半島의 끊임없는 影響을 받으면서 변화발전되어 갔고, 服飾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江上波夫의 '騎馬民族日本征服說'은 日本古代國家形成에 미친 韓半島의 影響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정치적인 影響은 말할 것도 없으며 社會·文化的인 影響 특히 服飾의 影響도 그에 못지 않다. 韓國學系에서는 이를 '衣袴着用民族 日本支配族說'[1]로 說明한바 있다. 그러나 韓半島의 影響에 대한 韓日兩國의 服飾學系는 다소의 見解差異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그러한 見解差異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함에서 시도되었고, 日本古代服飾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의 外來的 要素를 文獻을 中心으로 살펴보면서 몇가지 점에서 試論을 펴고자 한다. 미비한 점에 대해 先學의 識見을 바라며 후일에 수정보완하고져 한다.

Ⅱ. 先史時代의 服飾

日本古代服飾을 언급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原初的인 形態의 문제이다.

高橋健自는 「日本服裝史論」에서 日本服飾의 原初的 形態를 彌生時代의 銅鐸의 文樣에서 보이는 貫頭衣와 肩衣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靑森縣의 龜ヶ岡遺跡에서 彌生時代 以前의 繩文土器와 함께 文樣이 새겨져 있는 土偶가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繩文時代의 服飾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繩文土器의 硏究者인 佐藤傳藏가 土偶의 文樣을 보고 短袴의 表現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롯해서 小林行雄도 「日本考古學槪說」에서 土偶에 새겨진 文樣이 衣服의 表現이라면 筒袖의 上衣와 짧은 바지일 것이며 衣料는 織物의 存在에 대한 確證이 없는 한 毛皮類와 主材料일 것이라고 한 바 있다[2].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의 언급이 있었다. 衣服의 형태는 風土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먼저 일본열도에 정착한 민족과 流入經路, 文化의 성격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일본열도에서의 舊石器時代는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人骨이나 遺跡등의 考古學的 資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土器를 사용하기 이전의 文化라 하여 '先土器文化'라고도 한다[3].

이러한 文化를 지녔던 사람들은 대략 古蒙古系 人種으로 추정되며 일본열도로의 이동은 오랜세월 동안 서서히 九州를 거쳐 들어온 南方經路와 北海島를 거쳐 들어온 北方經路로 설명된다[3]. 南方經路의 이주자들은 中國産, 韓半島産, 말레이産등의 石器와 靑銅器文化를 지닌 다양한 민족의 이주자였고 北方經路의 이주자들은 아직 金屬文化를 지니지 않은 일본의 원주민이었다. 이 원주민은 체모와 수염이 특징적이며 繩文時代의 사람들 특징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現 東北地方의 日本人들과도 비슷한 아이누족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舊石器時代의 遺跡은 九州地方과 北海島地方, 關東地方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東日本의 關東地方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때 北方經路의 이주자들이 정착한 것으로 보이나 이 時代의 服飾에 관한 資料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繩文時代의 遺物도 주로 東日本에 편중되어 발견되지만 그 중 土器의 形態와 文樣등에서 東日本과 西日本의 地域的인 差異를 찾아 볼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은 상당기간동안 지속된다. 이는 東日本의 文化와 西日本의 文化의 源流와 성장과정이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 時代에 비로서 服飾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遺跡地에서 骨針, 編織布片등이 발견되며 특히 土偶의 文樣에서 衣服의 형태를 추론할 수 있다(圖 1). 衣服의 흔적이 있는 土偶는 주로 東日本에서 발견되며 上下二部式의 北方胡服樣式을 보이고 있다.

鷹司綸子[5]는 繩文土器의 起源이 內蒙古, 滿州地域이므로 服裝도 함께 北方經路를 통해 西日本까지 傳來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東日本의 二部式이 西日本으로 傳來되었다기 보다는 南方經路의 韓半島渡來人의 服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東日本에서는 북방경로의 二部式 服裝이 행해졌고 西日本에서는 南方式 貫頭衣

〔도 1〕 繩文晩期·土偶(靑森縣)(世界の美術 103)

계통과 韓半島의 二部式 服裝이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衣料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繩文末期로 추정되는 岡山縣津雲貝塚에서는 腕輪, 耳飾, 腰飾등 많은 裝身具가 人骨에 달린 채로 발견되어 이 時代에 많은 장신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繩文時代에 뒤이어 北九州를 통해 청동기문화를 지닌 농경문화가 傳來되면서 새로운 양식의 彌生文化時代가 열린다. 前時代의 生活樣式과는 달리 農具의 重要性, 彌生式土器, 階級의 發生, 住居地의 變化, 埋葬用 棺의 사용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階級의 發生은 墓制, 服裝등의 差異를 가져 오게 되었다.

특히, 墓制에는 그 규모에 있어 계급차를 보일 뿐 아니라 甕棺, 巨石墓, 石棺등의 형상은 韓半島의 것과 같은 양상을 띄고 있어 韓半島와의 關係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있으며, 副葬品의 성격은 상징적이고 주술적이다.

한편 寶器로 사용된 듯한 銅鐸도 발견되는데 이는 韓半島에서는 거의 發見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악기 중 鐘과 유사하여 中國에서의 渡來人이 日本에 와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6].

이러한 현상은 彌生文化는 南方 經路의 文化로 韓半島와 中國의 影響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日本에 관한 최초의 자료인 「三國志魏志」倭人傳에는 이 시대의 日本의 風俗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男子皆露紒以木緜招頭其衣橫幅但結束相連略無縫
> 婦人被髮屈紒作衣如單被穿其中央貫頭衣之……

倭人傳의 內容으로 보아 倭의 位置는 大陸과 交涉이 많았던 西日本, 특히 九州地方으로 추정되며 橫幅衣와 貫頭衣등 의복의 형태, 黥面文身의 습관, 기후상황등 여러 조건에서 볼 때 南方系文化임이 확실하다.

猪熊兼繁은 「古代の服飾」에서 倭人傳의 記錄은 北九州一部만을 資料로 한 것으로 南方系服飾은 民衆衣이고 貴族, 官吏의 服裝은 埴輪에서 보이는 衣褌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杉本正年은 西日本이라도 추운 날씨엔 橫幅衣만으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계급에 관계없이 衣褌을 착용했을 것이다[8]라고 하였는데 杉本의 見解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先史時代의 服裝을 종합해 보면 繩文時代엔 이미 南方經路를 통해 一部式服裝과 二部式服裝이 들어왔고 北方經路를 통해 二部式服裝이 들어왔는데 北方經路의 服裝이 量的으로 우세하였다. 그러나 彌生時代가 되면서 南方經路의 文化가 새로이 전래되면서 西日本에서는 南方系一部式服裝과 韓半島系二部式西服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한편 東日本에서는 北方經路의 二部式 服裝이 그대로 착용되었다고 본다.

Ⅲ. 古墳時代의 服飾

江上波夫[9]는 古墳時代를 3세기말, 4세기초에서 5세기말까지의 200년간을 前期로, 5세기말부터 7세기말까지의 200년간을 後期로 구분하고 있다.

彌生時代를 이은 이 시대는 韓半島의 文化가 가장 왕성하게 傳來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騎馬民族日本征服說로 說明된다.

古墳時代 前期의 文化的 性格은 彌生文化바탕위에 대륙의 文化가 융합되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墓制에 있어서는 堅穴式石室이 많이 나타나며 副葬品은 前時代와 같은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後期로 접어들면서 韓半島의 영향력은 장대한

前方後圓墳으로 나타나며 竪穴式石室은 차츰 橫穴式石室로 바뀌고 裝飾古墳도 등장한다. 副葬品으로는 武器, 馬具, 裝身具등의 일상용품과 여러 형태의 하니와가 발견된다. 이러한 副葬品은 대륙에서 발견되는 副葬品이나 明器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또 부장품의 모습은 중국문화와 융합된 동북아시아의 기마민족문화로 '中國化된 騎馬民族文化'의 특징을 보이며 그 내용도 軍事的 實用的인 것 위에 화려함이 더해졌다.

前期에서의 부장품 내용이 後期에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倭人의 內部的 變化에 의한 것이 아니라 外部的 變化에 기인한다. 즉 騎馬民族의 征服이다. 이들은 北九州나 本州의 西端部로 침입하여 4세기경 幾內로 진출한 후 강력한 大和朝廷을 수립하게 된다.

江上[10]은 筒袖上衣, 袴등의 騎馬服의 보급, 鉸具와 帶鉤달린 革帶, 鎧, 札甲등의 보급을 例를들어 그의 理論을 보강하였다.

한편 4세기초 韓半島 정세는 고구려가 낙랑을 추출하고 백제는 마한의 小國들을 統合하였다. 4세기중엽에는 新羅도 辰韓의 小國들을 통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加耶南部地域의 一部流民들이 日本으로 건너갔으므로 時期的으로도 江上의 說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 最初의 統一國家는 韓半島의 流民이 九州를 征服하고 다시 幾內로 진출하여 大和朝廷을 성립한 것이된다.

墓制의 입지조건, 분구, 외부시설, 내부구조등 대부분이 한반도의 伽倻·百濟古墳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11]. 특히 厚葬思想은 幾內中心地域의 高塚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日本書紀」에 의하면 垂仁天皇이 殉死의 習慣을 고치기 위해 하니와로 대신하게 하였다고 한다. 日本書紀의 기록이 傳說에 불과하다 해도 하니와가 단순히 古墳의 장식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墓를 지키는 사람대신 사용된 人形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突厥의 墳墓에도 주위에 많은 立石을 세웠는데 貴人의 경우 生前에 戰場에서 살해한 敵의 數만큼 세웠다고 한다[12]. 그러므로 하니와도 死者에 대한 祭禮때문에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西日本의 滋賀縣甕篠山古墳에서는 壺形하니와,

〔도 2〕 彌生中期·人面壺(次城縣)
(世界の美術 103)

円筒하니와가 발견되었고 그외 고분에서도 가옥, 무기, 武具등의 하니와가 출토되었다.

人物하니와는 주로 5,6세기의 것으로 특히 東日本의 關東地方에서 많이 출토되었다[13]. 次城縣에서는 발견된 彌生時代의 再葬用人面壺〔圖 2〕에 얼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關東地方의 人物하니와의 母體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人物하니와는 古墳時代의 服飾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니와에 보이는 服裝은 窄袖의 左衽短衣(男女共用), 脚結을 한 大口袴(男), 裙(女) 등이 많다.

하니와의 服裝에 대해 後藤守一은 固有發達을 주장한 바 있고 高橋健自등은 大陸系騎馬民族의 胡服傳來說을 주장한 바 있는데 胡服傳來說이 더 지배적이다. 또 韓國學系에서도 「魏志倭人傳」에 기록되어 있는 南方系의 服裝이 사라지고 하니와의 服裝이 韓族의 服飾一色으로 변모하는 것은 韓半島에서 도래한 騎馬民族의 征服에 의한 結果[14]라고 설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 說에 대해 部分

異論을 제기하는 바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關東地方에서 發見되는 繩文時代의 土偶 모습에서 이미 二部式의 服裝이 있었음을 보았다. 또, 西日本보다 더 추운 東日本에서 韓半島 騎馬服이 傳來될 때까지 南方系服裝으로 살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하니와의 服裝과 韓半島의 服裝이 그 源流는 같은 東北亞細亞에 두고 있다해도 서로의 傳來經路와 發展樣相이 다른 것이다. 하니와의 服裝과 韓半島의 服裝의 差異點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韓半島 服裝의 깃이 直領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盤領으로 나타난다. 盤領이 한반도에서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 壁畵에서 보이는 盤領은 주로 內衣에서 보이며 中國의 影響과 함께 나타난다.

둘째, 하니와에는 異色襷裝飾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셋째, 帶의 役割이 上衣의 여밈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식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밈에는 목부위와 가슴부위에서 짧은 끈으로 묶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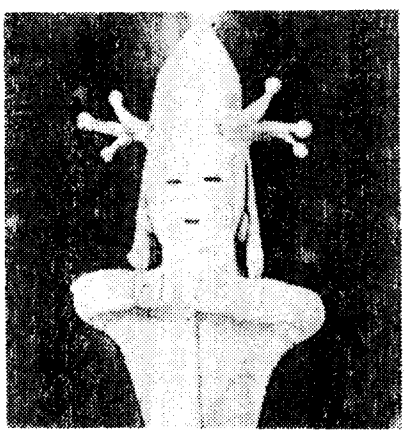
넷째, 하니와에 보이는 장신구와 副葬品으로 發見되는 장신구에는 差異가 있다. 오히려 副葬品이 韓半島의 것과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니와 인물의 계급과 피장자의 계급의 差異를 말하며 한반도의 것은 주로 피장자인 호족, 귀족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圖 3의 額飾은 Siebold가 아이누족의 裝身具[15]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특이한 모습이다. 따라서 하니와의 장신구는 아이누족의 장신구와 관련이 있으며 하니와의 기본복장도 그들의 服裝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中國服飾을 着用했던 사람은 극히 적은 수의 관료계층의 사람들이었다[16]고 하는 것은 日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古代服飾에서도 한반도의 영향은 오히려 관료계층의 복식에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日本의 官位制에 韓半島의 服制가 影響을 주었다[17]고 지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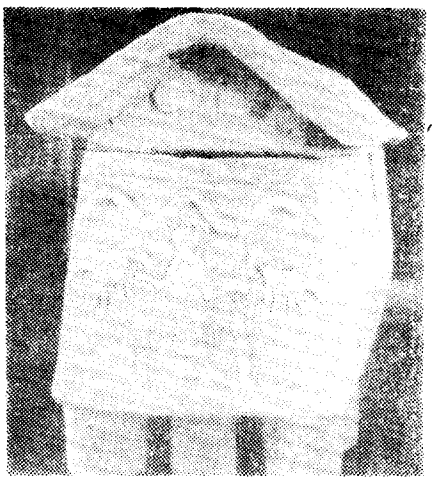
一條兼良의 「令抄」에서 '……百濟王貢縫衣工女本邦應神以來用百濟衣服大寶依令用唐衣服……' 이라[18]고 한 것처럼 大寶令 이후 唐服飾이 채택되기 前까지 百濟 즉 한반도의 服飾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扶桑略記」卷三에 '……建法興寺 立刹柱日 鴨大臣并百餘人 皆着百濟服 觀者悉悅以佛舍利龍羅刹柱礎中……'[19]이라하여 百濟服을 지적한 것은 서민들의 服飾이 百濟服飾과는 달랐다는 것을 뜻한다.

하니와의 服裝에는 위에서 언급한 北方胡服系統 이외에 南方系統의 服裝도 보인다. 한 例로 臺灣 原住民族의 服飾을 살펴보면 속옷없이 褌이나 腰布를 착용하고 脚絆을 첨가시켜 피부의 노출을 막고 몸에는 文身을 한다. 또 가슴덮게와 주름잡은 腰布衣, 貫頭衣등을 착용하기도 한다[20]. 하니와에도 반팔의 上衣와 토시의 형태〔圖 4〕가 보이며 하니와 이외의 陶棺등에서도 二部式의 服裝에 南方



〔도 3〕 古墳時代·天冠을 쓴 男子(群馬縣)
(日本の美術·はにわ)

〔도 4〕 古墳時代·兩손을 짚은 男子(次城縣)
(日本の美術·はにわ)



〔도 5〕 古墳時代・陶棺(岡山縣)
(日本の美術・古墳)

〔도 6〕 古墳時代・挂甲의 男子(群馬縣)
(日本の美術・はにわ)

系架裟衣를 두른 모습〔圖 5〕이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日本古代文化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文身의 경우도 魏志倭人傳의 기록은 南方系의 文身으로 吳越의 文身과 同一系統으로 보인다[21]. 또 「南史倭國傳」에 倭와 東北七千餘果 떨어진 곳에 文身國이라는 곳이 있는데 몸에 짐승처럼 무늬가 있고 얼굴에 三角文이 있어 뚜렷한 자는 貴人이며 작은 자는 賤人이다[22]. 라는 기록이 있는데 文身國은 대략 關東地方으로 추정되며 얼굴에 붉은 무늬가 있는 하니와도 거의 關東地方 出土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신은 東北아시아 古蒙古族의 文身과 상통한다[23]. 그러므로 文身에도 南方系와 北方系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니와에 나타난 服裝은 다시 말해 繩文時代의 土偶에 나타난 二部式의 胡服에 南方經路의 南方系服裝이 가미되었고 甲冑와 脚結〔圖 6〕등 中國化된 騎馬服이 韓半島의 渡來人에 의해 傳來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니와 이외의 出土品 중에는 被葬者의 裝身具, 武器, 甲冑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韓半島의 것과 거의 同一하다. 특히 帶金具는 加耶・新羅文化圈에서 傳來된 것이 많고 群馬縣에서 出土된 冠은 新羅의 金冠과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또 耳飾에서도 加耶・新羅의 것과 유사한 것이 出土되고 있다[24]. 이러한 자료는 被葬者 즉 지배계급이 韓半島의 渡來人이거나 그 影響을 받은 人物임을 말한다.

그 외의 服飾資料에 「梁元帝職貢圖」가 있다. 이 職貢圖는 梁의 元帝가 刺吏로 荊州에 在任하는 동안(526~539) 그 곳에 온 外國使節의 모습을 그리고 해설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北宋의 寫本(1077년제작)으로 12個國 使節의 모습이 남아 있다고 한다[25]. 그 중에 倭의 사신과 百濟사신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倭와 百濟를 비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百濟사신은 立華飾이 달린 冠帽를 쓰고 襌裝飾된 大袖袍, 大口袴를 착용하고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장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倭使臣은 넓은 Collar 모양의 가슴덮개를 맨살에 착용하고 어깨에 천을 둘러 가슴 앞에서 묶었고 허리에 다시 천을 둘러 앞에서 묶었다. 또 맨발을 한 채 팔과 다리에는 넓적한 토시와 각반을 하고 있다. 이 복장은 하니와 복장과는 전혀 다르며 오히려 「魏志倭人傳」에서 說明된 服裝에 더 가깝다. 이러한 복장은 韓半島의 영향이 컸던 大和朝廷의 服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大和朝廷이 아직 흡수하지 못한 九州地方의 小國에서 온 사신일 가능성이 크다. 이 당시 아직도 많은 小國이 있었다는 것은 中國史書에서도 알 수 있다.

요컨데 古墳時代의 服裝은 前時代의 南方系, 北

方系服裝이 分離되어 있던 상태에서 韓半島 騎馬民族정복에 의해 융합의 상태로 발전되며 특히 中國化된 騎馬風의 甲冑등 騎馬服이 보급되었다. 더우기 지배층의 服裝에는 騎馬服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基本服飾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Ⅳ. 飛鳥·白鳳時代의 服飾

韓半島에서 佛敎가 傳來되면서 부터 670년 法隆寺被災까지를 飛島時代라고 하며 670년부터 710년 平城遷都까지를 白鳳時代라고 한다[26].

이 時代는 佛敎的인 성격을 띄기 시작하며 推古天皇11年(603년)에 聖德太子에 의해 憲法亡條가 제정되면서 차츰 中央集權體制를 확립하게 된다.

이 時代의 服飾에 관한 資料로는 推古30年(622년) 聖德太子의 死後, 그가 往生했다고 하는 天壽國의 모습을 묘사한 天壽國繡帳이 남아 있는데 繡帳의 밑그림은 東漢末賢, 高麗加西溶, 漢奴加己利가 그렸고 采女들이 刺繡를 하였다고 한다[27](圖 7). 여기에 묘사된 男子像의 服裝은 筒袖의 盤領短衣에는 허리에는 帶를 띠고 袴를 착용하였는데 短衣와 袴에는 襴裝飾이 있다. 또上衣와 袴 사이에는 넓게 주름을 잡아 두른 것이 있는데 이를 裙이라 한다. 女性像의 服裝에도 남자와 同一한 上衣와 裙이 보이며 袴 대신 裙이 보이나 袴위에 裙을 着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도 7〕 飛鳥·白鳳時代 · 天壽國繡帳(日本の美術 · 刺繡)

이러한 天壽國繡帳의 服裝은 하니와의 服飾이나 그 후에 보이는 高松塚壁畵에서 볼 수 있는 服裝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關根眞隆[28]은 多小의 新樣式이 採用된 結果라고 지적했다. 裙은 推古13年(605年), 聖德太子가 衣服令에서 처음으로 着用토록 했다는 기록으로 의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하니와에도 보이고 高松塚壁畵의 人物象에서도 보이는 上衣의 여밈끈이 보이지 않고 여밈선도 좌측에서 中央으로 바뀌었다. 또 襷裝飾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는 하니와의 복장에서 天壽國繡帳의 服裝을 거쳐 高松塚壓畵의 服裝으로 變化되어 간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말한다.

聖德太子는 佛敎를 숭상하였고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 北朝의 佛敎와 佛敎文物을 받아 들였다[29]. 따라서 韓半島와 日本의 佛敎美術에는 北魏樣式이 流行하게 되었고 日本의 天壽國繡帳도 北魏樣式의 영향을 받았으며 表現된 服裝도 北魏의 佛傳圖, 本生圖등에 나타나는 것과 그 源流를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또 중앙아시아의 키질, 쿠차등의 벽화에도 그와 유사한 服裝이 表現되고 있다.

繡帳의 특수한 성격으로 보아도 그 시대의 實生活의 모습이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이 시대 佛敎美術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樣式化된 服裝의 表現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舊唐書」倭國傳[30]에 '……衣服之制頗類新羅……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服制에 新羅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新羅는 眞德女王3年(649年)에 唐服制를 公式的으로 채용하였고 日本에서는 白雉 2年(651)에 唐服으로 渡來한 新羅使를 처음 보았다.[31] 이것은 일본의 服制를 唐風으로 變化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奈良時代前까지는 唐制가 部時的으로 채용되었을 뿐 그 根本은 여전히 한반도의 것이었다.

이 時代의 服飾은 高松塚古墳壁畵에서도 볼 수 있다. 高松塚壁畵의 服飾은 고구려의 服飾과 자주 비교[32],[33]된다. 高松塚壁畵에 나타난 人物像의 服飾은 702年에 내려진 大寶令에 規定된 衣服의 構成과 일치한다.

壁畵의 男子像은 머리에 幞頭를 쓰고 直領의 左

〔도 8〕 飛鳥・白鳳時代高松塚壁畵
(世界の美術 105)

衽袍를 着用하고 있다. 圖 8의 모습에서 袍를 보면 길이가 袍와 衣의 어중간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랫부분에 襴이 있는 것으로 보아 衣라고 하기 보다는 袍라고 해야 함이 옳다. 또 袖口部分을 살펴보면 襈裝飾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벽화에 나타나는 服飾처럼 따로 낸 襈裝飾이 아니라 色이 다른 겹옷의 소매 끝을 접음으로 해서 안감의 色이 異色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소매를 접지 않으면 襈이 없

〔도 9〕 飛鳥・白鳳時代・高松塚壁畵
(世界の美術 105)

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女人像(圖 9)의 袍에서도 안감이 다른 色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소매의 襈裝飾처럼 보이는 部分의 色과 앞여밈의 젖혀진 끝자락에서 보이는 色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송총벽화 인물의 복장 설명에서 襈裝飾이 되어 있다고 하는 表現은 捲袖로 수정되어야 하며 袍는 겹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梁書」에 百濟에서는 襦를 複衫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北史」등에는 衣似袍라는 기록도 보인다. 지나친 비약일런지도 모르나 高松塚의 上衣도 겹옷이라는 점, 衣와 비슷한 길이의 袍라는 점등에서 일맥상통한다. 「日本書紀」에 應神天皇 14年 百濟에서 衣縫女가 渡來했고 그 후에도 많은 渡來人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듯이 百濟의 衣服構成이 日本의 衣服構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다른 硏究[34]에서도 高松塚服飾이 百濟系統의 服飾인 것 같다고 추정한 바있다.

그외의 男子服飾中 袍頭와 幞의 袍은 唐制의 영향으로 보이고 하니와에서 볼 수 있는 여밈끈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약간 발전된 매듭의 형태도 보이나 이는 自生한 것인지 唐의 團領의 여밈방법에서 影響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女人像의 服飾에서 袍는 男子의 것과 同一하다. 단, 帶의 맺음이 느슨하고 허리선보다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唐에서도 보였던 帶드림의 流行的 表現으로도 생각된다[35]. 또 색동의 裙과 마치 frill 장식처럼 보이는 下裳을 겹쳐 입는 着裝法이나 烏등의 사용은 唐의 影響이며 袍와 裙사이의 褶着用 역시 唐의 影響이다.

褶에 대한 說은 구구하다. 原田淑人은 「漢・六朝の 服飾」[36]에서 '日本의 褶은 唐의 袴褶制를 받아들여 上衣로 着用된 것인데 「令集解」에 婦人의 裳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唐代の服飾」[37]에서는 衣의 下部에 주름을 달아 裳으로 연결한 옷같다'고 하였다. 王國維[38]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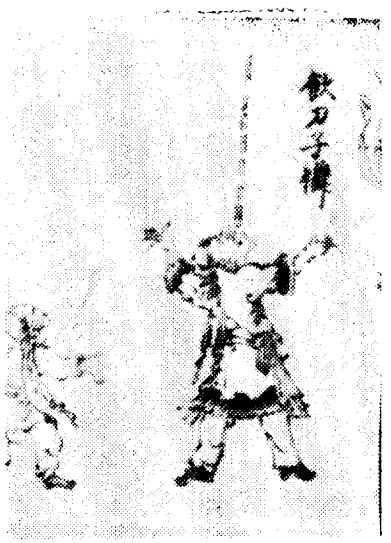
…釋名褶襲也覆上之言也又留幕州人所名大褶下至者也大褶至膝則小者較膝爲短矣顔師古注急就篇云褶重衣之最在上者也其形若袍短身而廣袖皆褶爲上衣之證也…

라고 하였다. 따라서 襈은 襲과 같으며 길이에 따

라 大褶과 小褶의 두 종류가 있고 형태는 짧은 袍와 비슷하나 소매끝과 아랫단부위에 주름을 잡은 上衣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褶의 모습은 唐代의 服裝(圖 10, 11, 12)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外衣로도 착용이 되었고 圓領등의 받침옷으로도 착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關根眞隆[39]은 '中國에서는 胡服을 袴褶이라 하여 褶이 上衣를 뜻하는 것이지만 日本의



〔도 10〕 唐·裁判圖(大唐の繁榮)

〔도 11〕 唐·信西舞樂圖(大唐の繁榮)

〔도 12〕 唐·가면을 쓴 俳優(大唐の繁榮)

褶은 男女의 바지나 치마위에 주름잡아 두른 腰卷의 일종이다. 「曝凉便解」의 衣服類에 褶의 단위가 '腰' '條'라고 하는 것은 上衣가 아님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中國에서는 褶의 單位가 '領'으로 보이니[40] 中國의 褶은 上衣를 뜻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日本에서 褶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中國의 制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上衣의 褶이 着用되었으나 그 곳의 기후나 기타 조건에 의해 간단한 腰卷의 形態로 變化되었다고 본다. 高松塚壁畵에서 보이는 褶은 男子에게는 보이지 않고 여자에게만 보인다. 「大寶令」에서도 男子의 褶은 보이지 않는다.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日本에서는 이미 하나의 장식화된 의례복장으로 褶이 腰卷形態로 바뀌면서 女性만이 着用하였던 것 같다.

8세기초 唐李賢墓의 壁畵에 新羅使로 보이는 人物[41]의 服裝이나 新羅時代 武服차림의 十二支神像에서 甲冑의 받침옷으로 褶이 보인다. 따라서 褶은 中國에서 新羅, 日本으로 傳來된 것으로 이 시대에 共通的으로 보이는 服裝임을 알 수 있다.

女人像의 裙아래에 보이는 細褶의 모습은 永泰公主墓 石棺의 탁본에서 보이는 爲위에 얹힌 치마자락의 모습으로 보아 下裳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新羅興德王의 服飾令에 보이는 下裳도 이와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高松塚壁畵의 人物像에서 볼 수 있는 服裝의 特徵은 袍의 制度로는 아직 韓半島의 기본형이 남아있고 여밈끈과 같은 日本自生的인 要素가 남아 있긴 하지만 裳의 着裝法, 舄, 幞頭, 袍의 襴등은 이미 唐의 影響이 짙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服飾은 오히려 日本庶民服에 자리잡아 日本民族의 和服의 원형이 되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V. 結 論

부족하나마 日本古代服飾形成에 미친 外來的 影響과 함께 韓半島의 影響을 살펴보았다.

日本의 先史時代에는 民族의 流入과 그에 따른 文化의 傳來가 있었다. 즉 九州를 통해 들어온 南方經路의 文化와 北海島를 통해 들어 온 北方經路의 文化가 들어 왔으며 이들 文化는 西日本과 東日本이라는 地域的 差異를 지니면서 성장해 갔다. 따라서 服飾文化도 西日本에는 南方經路의 一部式과 二部式의 服裝이 정착해 갔고 東日本에는 北方經路의 二部式 服裝이 정착해 갔다. 따라서 이 시대는 地域을 달리하여 南方系服裝文化와 北方系服裝文化가 共存한 時代이다.

그러나 古墳時代를 맞이하여 韓半島의 가야·신라문화권의 流民들, 즉 韓半島의 騎馬民族의 渡來로 中央集權的 體制로 발전하면서 南方經路의 文化와 北方經路의 文化는 하나로 융합되었고 服飾文化 역시 南方系와 北方系가 융합되면서 특히 騎馬民族的 服裝의 特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時代는 騎馬民族에 의한 文化의 융합시대, 服飾의 융합시대로 설명될 수 있고 특히 韓半島의 服飾은 支配階級의 服飾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韓半島를 通해 佛敎文化를 받아 들이면서 개막된 飛鳥·白鳳時代에는 奈良時代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성격이 나타난다. 즉 韓半島의 文化바탕위에 中國의 影響이 점차 커지면서 韓半島的 要素와 中國的 要素가 共存하는 時代로 된다. 服飾도 마찬가지 樣相을 보인다. 그러나 韓半島의 服飾은 日本服飾의 基層에 정착하게 되어 결국 日本和服 成立의 초석이 되었다.

參 考 文 獻

1. 金東旭,「增補韓國服飾史硏究」, 亞細亞文化社, 1973, 60~84.
2. 杉本正年,「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文化出版局, 昭和 54年, 36~38.
3. 淸野謙次,「太平洋に於ける民族文化の交流」創元社, 昭和 19年, 28~29
4. 井上光貞外,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第1卷, 學生社 1980, 147.
5. 鷹司綸子, "日本古代服飾にみる北方要素", 服裝文化 No. 150, 1976, 48~49.
6. 齊藤忠,「日本人は どこから 來たか」講談社, 1983, 159~160
7. 「三國志」魏志倭人傳
8. 杉本正年, *ibid.*, 45.
9. 江上波夫,「騎馬民族國家」, 中公新書, 1984, 156~161.
10. 江上波夫, *ibid.*, 165~170.
11. 金基雄, "墓制",「日本文化의 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東北亞細亞硏究會編. 三省出版社. 1981, 364~483.
12. 江上波夫, *ibid.*, 319~320.
13. 三木文雄編,「日本の美術」No. 19はたわ, 至文堂. 昭和 42年. 74~75.
14. 金東旭, *ibid.*, 75.
15. 淸野謙次, *ibid.*, 259.
16. 金東旭, *ibid.*, 60.
17. 曺圭和, '百濟服飾硏究' 한국의류학회지 4(2), 1980, 55.
18. 後藤守一,「日本古代文化硏究」, 河出書房, 昭和 17, 308~310.
19. 이은창,「한국복식의 역사」, 교양국사총서 29, 1980, 393.
20. 辻合喜代太郎, "臺灣原住民の服裝", 衣生活硏究 Vol. 10(8), 1983, 6~11.
21. 山田宗睦, 「魏志倭人傳の世界」 敎育社歷史新書 22, 1979, 120.
22. 井上秀雄外,「東アジア民族史」, 平凡社. 1982, 354.

23. 三上次男, 「古代東北アジア史硏究」第 2, 吉川弘文館. 昭和 52, 148.
24. 齊藤忠, 「古代の裝身具」, 塙書房, 昭和 38年, 塙 226.
25. 李弘稙, "梁職貢圖論考", 高大 60주년기념논문집, 1965, 303~304.
26. 田村圓澄, 「古代朝鮮と 日本佛敎」, 講談社. 1985, 69
27. 守田公夫編, 「日本の美術」, No. 59, 刺繡, 至文堂, 照和 46年, 21.
28.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硏究」, 吉川弘文館, 昭和 49年. 318~321.
29. 「大唐の繁榮」, 世界文化社, 昭和 44年. 156.
30. 「舊唐書」倭國傳
31. 關根眞隆, *ibid.*, 321.
32. 崔淳雨, '高句麗古墳壁畵人物圖의 類型', 考古美術. No. 150, 1981, 174.
33. 金惠全, '高句麗壁畵服飾과 高松塚壁畵服飾의 比較硏究', 숭전대논문집 8, 1978.
34. 金惠全, *ibid.*, 172.
35. 拙稿, '東洋의 帶(1)' 安東大學論文集 第 6 輯 1984, 822.
36.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洋文庫, 昭和 42年. 120~121.
37.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東洋文庫, 昭和45年 42~44.
38. 王國維, 「古胡服考」 4.
39. 關根眞隆, *ibid.*, 249.
40. 岡崎敬, '漢代邊墳兵士の被服について', 「東洋史硏究」第13卷, 昭和 57年 65.
41. 金元龍, "唐李賢墓壁畵의 新羅使(?)에 대하여", 考古美術 123, 124合號. 17~21.